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 다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선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스럽게 묻는 최구(崔龜)에게 노답(老聃)은 이렇게 말한다. “옴음과 그림, 알과 모름 따위를 요란하게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며 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게. 사람의 마음은 남을 밀쳐 내리고 자기가 위로 오르려 하게 마련이네. 그러다 보니 오르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서로 가두고 죽이려 들게 되는 것이지. 나긋나긋 구워삶아서 강하고 완고한 자를 팔링하게 무장해제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모질게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까지 쪼아 대기도 한 다네. 마음이란 건 뜨겁기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고 차갑기는 공공 얼어붙은 얼음 같지. 빠르기는 또 어떤가. 고개를 숙였다 드는 짧은 순간에 세상 끝까지 두어 번은 갔다 왔다 할 정도일세. 가만히 있을 때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다가도 움직일라 치면 어느새 저 높은 하늘에 걸려 있지. 명심하시게. 제멋대로 내달려서 붙들 어 들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그게 공로상이 맞지, 왜 작품상이야” 문학 동우회 시상식 뒤풀이 자리였다. 시상식 후에는 늘 작품 뒤에 수상자가 도마 위에 올려진다. 작가정신과 작품성을 갖춘 작가인지라 마음이 불편했다. 결국 술자리는 개운한 자리가 되지 못했다. 낮을 밝히기 전에 먼저 슬그머니 일어섰다. 새해가 제법 지났건만 올해도 여전히 조용할 날이 없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다투고,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다툰다. 병신이 부족하고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하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몰래 모여 위기를만 구원을 얻겠다고 한다. 거기에 선거가 겹쳐서인지 진보와 보수가 상대를 비방하느라 악다구니를 질러댄다. 오 잔치나 혈통기 대화를 보는 것 같아 정신이 혼미해진다. 검사나 의사들의 한심한 작태에 화가 치민데다 가장 못한 정치인과 국회의원까지 뽀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 따뜻한 이야기는 그들의 고성에 가려 판도라 속에나 있을 성싶다. 겨울비라도 오려는지 밖은 마음처럼 희끄무레하다. 지구 끝에 선 것인양 답답하다. 집까지 가려면 제법 밀

기고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전광주교대 총장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간, 깨끗한 공기, 친환경 녹색 교정, 최첨단 기자재를 갖추으로써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왕성한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면 좋겠다. 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명 ‘5S 스쿨 만들기’다. 그렇다면 5S 스쿨이란 무엇인가? 첫째, 스마트 안전 학교다. 등교에서 하교까지 인공 지능(AI)을 활용한 안전한 보호와 물리적으로 안전한 시설(소프트한 건물 벽면, 모서리 없는 책걸상, 안전한 운동시설, 친환경 바닥 마감재, 안전한 공간 설계 등)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이다. 거기에 더해 보건·위생·건강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지는 것이다. 또한 유해 자재와 석면이 없는 교육 환경,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친환경 우리 농산물), 다양한 학생의 식사권 보장(채식주의자, 다문화 학생 등)이 포함된다. 심리·정서적으로까지 안전성을 확보해 학교 폭력·왕따·자살 제로화를 실현한다면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 녹색 학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

마음을 흔들다, 마음을 살피다

‘장자(莊子)의 ‘재유(在宥) 편에 나오는 기상 문답이다. 성인(聖人)을 추종하는 유가가 일어나서 인의(仁義)의 가치 아래 옳은 길을 제시하고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하며, 교화를 통해 아는 이와 모르는 이를 구분하고 상벌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계도하려 한 데에서 모든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장자의 관점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속임과 비난, 추방과 처형이 횡행하고 천하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요순 이래 여러 훌륭한 분들이 몸이 상할 정도로 부지런히 뛰어나니 머 다스려 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분열과 반목만 주장될 뿐이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제대로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정의의 가치를 내걸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지는 명분 위에 서서 촛불 집회와 탄핵 소추로 출범한 정권이 어느덧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성패를 논할 시점은 안 되지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른 것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일에 참으로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주장하고 현실에서 관철해 내는 일 역시 매우 많은 난관을 헤치고 나갈 지혜와 내공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사람, 당연히가 누리던 것을 놓아야 하는 사람, 의도와 달리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모두를 다 설득하며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옳으니 따라야 한다

의자현(義自見)

릴 것 같다. 붕어빵을 몇 개 넣고 얼마를 가니 요금소다. 잔돈을 받고 붕어빵 하나를 건네는데, “월척 닳으셨나 봐요?” 아주머니가 환히 웃으며 새해 인사를 건넨다. 밝게 웃는 얼굴이 힘차다. 모두 아파트값 인상으로 아우성인데, 통행료 요금을 받는 곳만은 절해고도(絶海孤島)인가 보다. 아니 교도소라고 여겼는데, 저기만 이상향(nowhere)이나 샹그릴라(Shangri-la) 같다. 모두 협소하다 못해 숨이 막힐 것 같이 보이는 곳인데 저리 평온이 있을까. 일에 몰두하기 때문일까. 공간보다 생계가 절실하기 때문일까. 아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 순간 읽었던 책이 떠올랐다. 미국 어느 통행료 징수대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 사내 이야기였다. ‘사흘도 지켜워서 못 견딜 그런 좁은 공간 안에서, 난 혼자만 쓸 수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셈이고, 또한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산들을 구경하며 월급을 받는다’며 찌찌이 신나게 춤을 추는 사내의 이야기, 마음을 열어 주는 101가지 이야기다. 순간 그 아주머니가 장자로 보였고, 문학상 하나 가지고 낮을 밝힌 친구와 나는 달팽이 뿔 위에서의 목숨을 걸고 싸운 속 좁은 사내들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쩔 수 많은 병아리들이 서로 다르다고 뽐을 내지만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병아리인 것처럼, 아웅다웅 다투는 백인이나 흑인, 유색인종도 먼 곳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하물며 개알보다 작은 것 가지고 허구한 날 마주치면 싸우는 인간들을 어떤 존재가 넓은

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남는 것은 점점 더 극대화되는 분열과 반목뿐이다. 옳고 그름을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만 했지,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헤아릴 줄은 모르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옳고 그름의 구분과 경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장자의 주장을 좇아 무위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유가와 성리학을 떠받들던 조선의 선비들도 장자의 위구절을 즐겨 인용하곤 했는데, 성인과 인의를 부정하는 주장에 문면 그대로 동의해서는 물론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실감나게 묘사한 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과 수사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나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데에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가만히 머물러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지지했던 이들과 멀어져 점차 돌아서고 사실과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대의 주장마저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그 주장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를 계속 무지 혹은 음모의 소산으로 치부한다면 결국 극단의 추종과 거부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어차피 붙들 어 들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서는 고정된 판단의 빔장을 활짝 열어 둘 일이다. 각각의 마음이 지닌 상상력의 자유분방한 가능성이 이 갑작한 시대를 뚫고 나갈 유일한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社說

글로벌모터스 잇단 사고 안전대책 있나 없나

노사 상생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최근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공장 건설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벌써 두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다. 합평경찰에 따르면 합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GGM 공장에서 A(54)씨가 며칠 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GGM 공장 건설을 맡은 원정업체로부터 천장 내 ‘덕트’(공기가 흐르는 통로) 설치 작업을 하청 받은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지상 9.5m 높이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 고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직을 분배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된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60대 여성 노동자가 공장 내 바닥을 청소하다 사다리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GGM 측은 박광태 대표 이사가 직접 사과하고 무재해 공장 건설

을 위한 안전순찰반 운영, 안전보조 조정자 선임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광주시 역시 “노사 상생 도시 광주의 가치를 생명 건설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벌써 두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다. 합평경찰에 따르면 합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GGM 공장에서 A(54)씨가 며칠 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GGM 공장 건설을 맡은 원정업체로부터 천장 내 ‘덕트’(공기가 흐르는 통로) 설치 작업을 하청 받은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지상 9.5m 높이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 고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직을 분배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된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60대 여성 노동자가 공장 내 바닥을 청소하다 사다리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GGM 측은 박광태 대표 이사가 직접 사과하고 무재해 공장 건설

전남에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된다

전남 지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꿈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2030년까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주민 고용 및 이익 공유를 내세워 ‘전남형 상생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 노·사·민·정 37개 기관과 함께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사업은 전남의 풍부한 해상 풍력 자원을 활용해 신안 해상 일원에 8.2G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설비 용량 8.2GW는 원자력발전소 8기 수준으로, 호남권 전체의 사용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본 46조 원 등 총 48조 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SK E&S와 두산중공업 등 여러 발전사와 제조업체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

려진 이 사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추진 과정에서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450여 개의 기업 유치·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무후무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송배전 공동 접속설비 구축 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선투자해 준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부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해상풍력 개발지원본부’ 설립, 목표 시행만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기 구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도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無等鼓

아마도 한국의 갓난아이 중 상당수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의 음악을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들었을 것이다. 연구 결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태교에 좋다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神童)답게 다섯 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여덟 살 때 이미 ‘교향곡 1번’을, 아홉 살 때 성악곡과 피아노를, 그리고 열한 살 때엔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한다. 열다섯 살 이전에 교향곡·오페라·소나타 등 100여 곡 이상을 작곡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는 아마도 잘츠부르크 교정 음악가인 아버지의 교육열과 아들의 천부적 재능이 어우러진 결과일 것이다.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여섯 살 때부터 유럽 전역으로 ‘연주 투어’를 다녔다. 이런 과정에서 모차르트는 바흐의 아들(요한 크리스티안 바흐)과 같은 당대의 유명 음악가를 만났고, 각 나라의 오페라와 교향곡 등 여러 음악 형식을 접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열네 살의 나이로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는 로마 교황청이 외부 유출을 금하던 종교 합창곡 ‘미제레레’를 한 번

듣고 바로 채보(採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 모차르트는 “나는 머릿속에서 완성된 악보를 그려 오선지에 옮기고 있을 뿐”이라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완성된 악보는 그 만큼 깨끗했는데, 이는 모차르트 타게 이후 그의 아내(콘스탄체)가 악보 초안이나 수정 흔적이 있는 악보들을 모두 없애 버렸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어찌 됐든 우리는 한 천재 음악가 덕분에 생활 곳곳에서 클래식 향연(響宴)을 만끽하고 있다. 내일(27일)은 모차르트의 265번째 생일이다. 이날 모차르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는 그의 미발표 피아노곡이 초연된다. 열일곱 살(1773년) 때 이탈리아 여행 중 또는 여행 후에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1분34초 길이의 피아노곡 ‘알레그로 D장조’이다. 작곡된 지 248년 만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손끝에서 첫 연주되는 음악은 어떠할지, 자문 궁금하다.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은 아득한 시공간 저편에서 서른다섯 살에 요절한 천재 음악가가 보내온 값진 ‘선물’ 하나를 받았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모차르트의 선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